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05 **05** 2015



나이테(Tree Ring)는 나무의 나이를 말할까?

거대한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면 신비스럽기만 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레드우드(Red Wood)는 110m에 달하고, 가장 두꺼운 세코이아(Sequoia) 나무는 직경이 13m가 넘는다. 어떤 나무들은 거의 무한정 사는데 자라면서 두꺼워지며 나이테를 만든다. 나무편자를 보면 무늬가 잘라진 면에 따라 다양한데, 이 나이테로 인한 것이다. 세코이아 나무 중에 두꺼운 것의 나이테는 3,000개가 넘으며, 살아있는 나무 중에 가장 많은 나이테로 보고된 것은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브리스틀콘 소나무(Bristlecone Pine) 인데 5,000개 이상의 나이테를 갖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무는 매년 하나의 나이테를 추가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한글로 '나이테'라고 부르는 것 같다(영어로는 tree ring). 나이테는 나무가 성장하는 계절에는 밝은 색을, 덜 성장하는 계절에는 어두운 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테의 수를 세어봄으로써 그 나무의 나이를 계산해왔으며, 이런 학문을 나이



테 연대기학(dendrochronology)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드는 궁금증 하나가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던 홍수 심판 사건은 성경 그대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인데 어떻게 그보다 더 오래된 나무들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나이테가 그 나무의 나이를 말해줄까? 과학자들이 나이테 성장에 궁금증을 갖고 여러 해 동안 수백 개의 나무들을 관찰한 적이 있다. 나무 안쪽과 바깥쪽에 정밀한 센서를 부착시켜 나무의 성장을 조사했다. 살아있는 나무에 연필 정도의 두께를 가진 침과 같은 것을 나무에 삽입시켜 성장에는 방해를 주지 않고 나무 속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다. 이 기계는 15분마다 성장하는 상황을 측정할 정도로 정밀한 것이었다. 그리고 주위 환경과 나이테의 성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조사했다.

이 연구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은 나이테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어떤 나무는 한 해에 여러 개의 나이테를 만들고 어떤 경우는 전혀 만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어떤 나무는 한 해에 다섯 개의 나이테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어떤 경우는 조사 기간 동안에 자란 여러 개의 나이테가 너무 미세하게 밀집되어 현미경으로나 판독이 가능한 것들도 있었다. 연구된 모든 나무의 나이테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건에 따라서는 그 성장이 때 시간 변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 나이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건은 날씨였다. 건조한 기간과 비정상적인 폭우가 반복되었을 때 짧은 기간에도 여러 개의 나이테를 만들었는데, 한번의 폭풍이 올 때(1년이 아니라) 하나의 나이테를 생산했다! 즉 1년에 한 개의

나이테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나무의 실제 나이는 나이테 숫자보다 훨씬 젊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였다. 나이테는 결코 '나이테가 될 수 없던 것'이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 고정관념이 마치 상식처럼 보편화되었을 때 그것이 회수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나이테에 대한 편견도 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나이테뿐 아니라 지구의 나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데이터를 연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탄소연대측정법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유기물 속에 있는 '탄소14/탄소12'의 현재 비율뿐이다. 유기물은 과거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를 갖고 처음 탄소14 양이 얼마였을 것이고, 과거에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 것이라는 편견에 따른 가정 하에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칼륨-아르곤 연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용암 속에 있는 아르곤의 현재 양뿐이다. 용암도 과거에 대하여는 침묵만 한다. 그런데 과학자는 그 양만 가지고 자신의 편견을 통해서 과거를 계산(!)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해석을 데이터로 오해한다. 심지어는 계산했던 자신이나 전공자조차도 이 숫자가 해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백억 년이 넘었다는 우주의 나이도 결국 안에 들어가보면 모두가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테로 과거의 나이를 알려고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며, 아울러 나이테가 정확한 나이를 말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연대측정법도 비슷한(실제로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창조과학자에게 나이테는 오히려 과거를 말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빙하시대 동안에 지구의 날씨가 극단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빙하시대는 수백 년 정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홍수가 끝이 날 무렵부터 나무들이 다시 싹을 피웠고(창 7:11), 한동안 잘 성장하던 나무들이 빙하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태보다 많은 나이테를 생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테의 수가 홍수 심판 이후의 연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을뿐더러, 더 나아가 홍수 이후에 있었던 우리의 지난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태양계 / 태양(1)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창세기1:16)

우리의 태양계 중심에는 있는 태양은 10억개의 세계 주요 도시가 일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매 초 내보내는 안정적인 “수소폭탄”이다. 태양은 그 복잡성과 힘에 있어서 매우 놀랍다. 태양에 관한 과학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 창조를 입증하는 것을 발견한다.

태양의 창조와 목적

태양과 다른 하늘의 광명체들은 모두 창조 주간의 넷째 날 만들어졌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늘의 광명체들이 (1) 낮과 밤을 구분하기 위하여, (2)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경과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3) 지구에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 준다 (창세기 1:14-15). 네 번째 목적은 성경의 다른 곳에 드러나 있다 - (4)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시편 19:1-6).

이 네 가지의 목적은 광명체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두 개의 목적은 거의 대부분 태양에 의해 수행된다. 오직 태양만이 낮과 밤을 구분한다. 모든 광명체들이 지구에 빛을 비추긴 하지만, 태양의 밝기에 비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의 첫 3일 동안 낮과 밤을 구분하시기 위하여
임시적인 빛을 제공하셨다. 왜 태양이 넷째날이 되어서야 창조되었을까?
또한, 창세기는 왜 태양과 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까?

밝기는 매우 적다. 창세기에는 태양과 달 모두 “큰” 광명체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태양과 달은 다른 광명체보다 훨씬 더 밝고, 큰 디스크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광명체들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점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태양이 달보다 더 크고 밝으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근원을 가지고 있다. 달은 더 작고 흐릿하며 빛을 내기 위하여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한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함으로써만 빛난다.

이들 두 개의 광명체의 다섯 번째 목적은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온다 - (5) 바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관하다” 혹은 “다스리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권세 혹은 통치를 의미한다. 태양은 낮을 정의하고 낮 동안 다른 모든 광명체들을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밝기 때문에 낮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될 수 있다. 달은 다른 모든 광명체들보다 더 밝음으로써 밤을 “다스린다”. 달은 밤에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며, 달이 없을 때 별들이 밤을 “다스릴” 수 있다 (시편 136:9). 광명체들이 밤 낮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곧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국기에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족을 해와 달, 그리고 별들로 묘사하며 (창세기 37:9), 이는 성경을 통해 계속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2:1).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창조의 첫 3일 동안 낮과 밤을 구분하시기 위하여 임시적인 빛을 제공하셨다. 왜 태양이 넷째날이 되어서야 창조되었을까? 또한, 창세기는 왜 태양과 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까? 그것들은 단지 낮을 다스리는 “큰 광명체”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체”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시편 136:7-9와 같은 다른 성경말씀을 통해 그것이 해와 달을 가리킨다는 것을 안다.)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와 달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일지 모른다. 태양은 생명의 1차적인 근원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태초라는 것은 첫째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태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태양은 인격적인 이름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창조의 일부분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큰 광명체이다.

출처 : Jason Lisle, Ph.D.(천체물리학), *Acts & Facts* 42(7): 10-12
번역 : 이충현/DMD,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이재만 회장 미주 창조과학 단체 장과의 만남

이재만 회장은 지난 3월 14-21일 일주일 일정으로 창조과학선교회 전 회장이신 최인식집사님(Cleveland, OH)을 비롯하여, AIG(Answers in Genesis, Petersburg, KY) 회장 Ken Ham, ICR(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Dallas, TX) 회장 John Morris 박사 등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번 여정은 이재만 회장의 취임에 이어서 이루어졌으며, 북미의 대표적인 창조과학 단체의 활동을 둘러봄과 동시에 서로간의 교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정 동안 이재만 회장의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최인식 전회장은 1982년부터 창조과학회 미주지부로 시작해서 33년간 미주 한인 사회에 창조과학의 씨를 뿌리셨으며, 지금까지 창조과학선교회가 바른 방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최 전회장은 창조과학선교회가 최근에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임무가 되었으며, 성경에 대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AIG의 회장인 Ken Ham과 만났습니다. Ken Ham은 최근 AIG에서 진행하고 있는 Ark Encounter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Ark Encounter는 방주를 실물 크기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내년 가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미 공개된 Ark 제작 과정을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으며, 창조박물관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 기독교 방송사인 CGN TV와 MOU 관계를 갖고 AIG에서 제작된 영상을 CGN-TV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 내용도 나누었습니다. AIG의 지질학 연구 책임자인 Dr. Andrew Snelling과도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ICR을 방문하여 Henry Morris IV, Dr. Leo Herbert, Dr. Tim Clarey 등 실무진과 연구진을 만나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Dr. Clarey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질학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Dr. Clarey는 미국 전역의 지층을 드릴링한 자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홍수 심판의 진행과정뿐 아



니라 홍수 이전의 지형의 높낮이를 유추할 수 있는 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Henry Morris IV는 ICR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었는데, 진행되는 연구뿐 아니라 앞으로 Dallas에 건축될 창조박물관의 부지도 안내해주었습니다. 이날 ICR 회장인 John Morris 박사 내외분과 식사를 했는데, Morris 회장은 그 동안 ICR과 창조과학선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 관하여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DVD 한국 자막

ICR에서 지난 해 제작된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DVD에 한국어 자막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해까지 영어로만 들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말 창조과학 선교회의 요청을 수락하여 한국어 자막을 넣어준 것입니다. UMG DVD는 12개 주제로 각 22분씩 아래 제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고 화질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최신 자료도 함께 들어간 훌륭한 작품입니다. 한국어 자막이 있으므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스페인어와 중국어 자막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교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R에서는 올 가을에 발매될 “Made In His Image” DVD도 제작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한국어 자막을 넣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UMG DVD는 ICR이나 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창조과학선교회에 이메일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DVD에 들어있는 주제

1. Chaos or Cosmos? (혼돈인가 질서인가?)
2. What is Life? (생명은 무엇인가?)
3. What is Man? (인간은 누구인가?)
4. Buried Clues (매장된 단서들)
5. Flood or Fiction? (홍수인가 소설인가?)
6. How Old is Earth? (지구는 얼마나 오래되었나?)
7. Dinosaurs! (공룡!)
8. The Ice Age (빙하시대)
9. Rise of Civilization (문명의 봉기)
10. Origin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원)
11. Uniqueness of Earth (지구의 유일성)
12. Science and Scripture (과학과 성경)





Split Mt.의 화석 언덕 위에서

풀러 신학원 앤자 보레고 주립공원 답사

지난 4월 2일 풀러 신학원 재학생 15명은 Anza Borrego State Park 당일 답사를 가졌습니다. Fonts Point(폰츠 포인트), Split Mt.(스플릿 마운틴) 등을 경유하며 지층, 역암, 단층, 습곡, 화석 등의 모습을 보며 창조-홍수심판-빙하시대에 격변적 증거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종학 박사 세미나 스케치

지난 3월 19일 풀러신학교에서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종학 박사의 세미나가 있었다.



그의 저서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우종학, IVP)"에 대하여 익히 들었던 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는 쉽게 짐작되었었다. 하지만 크리스천 천문학자가 기원논쟁에 관한 논쟁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궁금하여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실망이 컸던 것은 초지일관 그는 진화적 패러다임의 천문학 강의를 기초로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무식을 지적하였다. 그는 과학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빅뱅이론이 정설이며, 진화론적 패러다임의 큰 흐름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과학의 진리라고 역설하였다. 그 이후 그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용어는 진화라는 말

과 구분 없이 사용되었으며 수강자로 하여금 진화는 바뀔 수 없는 과학적 진리임을 수용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였다.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모두 138억년의 우주역사와 46억년의 지구역사의 진화적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비전문가들이 과학계의 흐름에 반하여 교회에서 젊은 지구를 말한다고 지



분명한 것은

진화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서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적하였다. 특히 문자적 해석의 근본주의인 ‘창조과학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있는 필자의 상식으로도 지질학 분야에서 ‘동일과정설’적 해석보다 ‘격변설’에 근거한 해석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며, 생물학에서도 염색체 수가 다른 종류로의 변화(대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며, 다만 기존 유전정보 내에서의 변이(소진화)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무식의 소산으로 치부해 버렸다.

강의를 듣고 있던 한 분이 생물학적 진화의 증거로서 전이화석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하였다. 이어 필자가 생물 대진화의 한계를 설명하자 “생물학 전공했느냐”고 물으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였다. 이에 필자도 우 박사에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강사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화론적 패러다임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그의 설득은 너무나 빈약하였다. 오히려 다른 과학분야의 지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과학자이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은 진화와 창조에 대한 진리여부는 전문가인 본인에게 맡겨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얼마나 억지인가? 세미나를 듣고 있던 몇몇 사람이 강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질문을 하였지만 강의를 듣는 장이기도 했고 시간적으로 제한되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도 제한되어 있어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세미나 마지막에 생물학 전공자 한 분이 강사에게 공손히 잘못된 점을 지적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못한 채 침묵이 흐른 뒤 다음 질

문으로 넘어 갔다.

필자가 강사의 신학 노선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다.

“나도 과학이 성경을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가 과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사님은 인간도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종학박사는 자신은 인간도 진화되었다고 믿는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흠에서 사람이 창조된 것과 아메바에서 사람이 진화된 것과 무엇이 다르며 흠보다 아메바가 낫지 않느냐고 농담을 곁들여서 웃음을 자아냈다. 마치 진화를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속 좁다고 비웃기 위함인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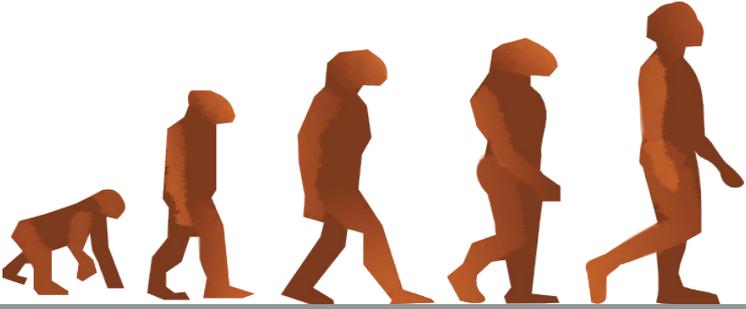


이어서 구두로 질문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우 박사는 전형적인 유신론적 진화론에 입각하여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종류대로, 또 인간까지 창조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과학이 발전하는 21세기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과학을 받아들여야 할지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겠다’던 우박사의 강의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수치로 드러난 구태의연한 ‘유신론적 진화론’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사와 인사를 나누며 이러한 강의를 하는 목적을 물었다. 강사는 과학과 성경의 괴리로 인하여 갈등하는 많은 크리



스천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야심 찬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필자는 그 목적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며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과학자의 권위와 크리스천 지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다음세대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분명한 것은 진화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서 다음세대가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가 잘못 된 것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영진 목사 / 플러신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창조과학 탐사

간증

이랑학교

심판의 땅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참 사랑하신다는걸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이번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 더욱 느끼게 되었다. - 정태승 <이랑학교>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만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설명도 해주시고 그 증거도 보여주실 때마다 내 믿음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한국가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 정태명 <장양교회>

우리가 초등학교때 배운 과학중에 틀린 것이 이렇게 많다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특히 공룡의 멸종과 나무의 나이테도 우리가 배운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 은혜로웠던 것 같다. - 유동휘 <이랑학교>

과학교사로서 사실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과 더더욱 잘 알고 깨달아서 저 자신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듯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Rejoice!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항상 살겠습니다. - 이상윤 <이랑학교 교사>

미리 이랑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랑에 와서 이 창조과학 탐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참 감사드린다. 처음이 좋았다는 일을 계속 들으니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다. - 김신영 <이랑학교 8학년>

설 틈 없이 Death Vally와 Virgin Canyon을 지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까지 지나가면서 이제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목표가 없고 꿈이 없었던 나에게 목표와 꿈이 생겼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탐사를 도와주신 부모님, 선생님 들께 감사 드린다. 나중에 가족이랑 다시 오고 싶다 - 강은총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작 일을 하는 것이 예배이다. 우리를 위해 자연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걸 깨닫고 알도록 해주신 이제만 선교사님께도 감사하다. 미국 창조과학탐사, 잊을 수 없는 배움의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 이종찬

선교사님이 쓰신 책 '노아홍수 콘서트'의 내용을 이제는 눈으로만이 아닌 귀로 배우니 너무 좋았고 사진으로만 보던 선교사님의 칠판도 뭔가 반가웠다. ... 나는 '아무리 방주가 컸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물들이 종류대로 탈수있지' 라는 궁금증을 품었는데 이후에 이 궁금증은 풀리게 되었다. 이날 들은 임팩트 있는 질문 "boat 탈래 box(방주) 탈



9/22-27, 2014

래?” …우리는 이 방주에 ‘유일하다’ 라는 말을 써야한다. 물론 최고로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방주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이신 것처럼 말이다. - 박규희

처음에는 그랜드 캐니언과 노아 홍수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몰랐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알게 되었다. 이번 창조과학 탐사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나무에 있는 나이트는 정확한 나무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에 너무 놀랐다. 그리고 가장 내게 좋았던, 유익했던 것은 대륙이동설이다. 이번 탐사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꼭 다시 오고 싶다. - 박연규

선교사님께서 과거는 증인을 만나야 한다고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고 이날 말씀을 하셨다. …나도 살면서 동일과정설의 사고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내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게 전혀 진화론적 사고인줄 몰랐었다. 정말 패러다임은 무서운 것 같다…감사함으로 이겨내자! 학교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변화된 8학년이 되기를… 학교 가서 배운 것들을 다 까먹지 않길! - 부가은

우리가 이미 당연하듯이 배워왔던 많은 것들에 진화론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래서 내 머리의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고쳐져 나갔다. 마지막으로, 자이언 캐니언을 보고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구나.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과 흙이 쓸고 가야 이런 곳이 생길지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때까지 지층은 한층 씩, 한층 씩 쌓인다고 알고 있던 예전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깨어 살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오로라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등등 정말 끝없이 펼쳐진 협곡들과 지층들을 보고 노아홍수의 배경과 전기, 후기 등등을 배웠는데 직접 보면서 배우니까 책으로만 보면서 배우는 것 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고…지층도 보이고 창조 때의 땅, 셋째 날의 땅까지 눈으로 확인한데다가 이제만 선교사님의 강의까지 들으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창세기 1장이 되었고, 창조는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까지도 인정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오효석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강의들 중에 과학자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 분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셨고, 진화론에 대해 비판적이셨으며, 창조론에서 답을 얻으신 분들이셨다. … 아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려야겠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창조론에 더욱 근접해진 것 같다. - 차주은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27-5/4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5/11-14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5/16-21 창조과학탐사 (천안제자교회), 이재만
 5/21-27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3-25 EM창조과학탐사 (ANC온누리교회), 김선욱
 5/28-6/4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5-6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이재만), WA
 6/8-15 창조과학탐사 (Basic Church), 이재만
 6/16-19 빙하시대탐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이재만
 6/22-24 빙하시대탐사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6/28 남가주 헤브론교회 (이재만), CA
 6/29-7/6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7/6-11 창조과학탐사 (Compassion), 이재만
 7/8-10 EM창조과학탐사 (나침반교회), 김선욱
 7/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 교수), 이재만
 7/13-16 EM 창조과학탐사 (OMA), 김선욱
 7/23-26 창조과학탐사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7-8/2 창조과학탐사 (꿈의학교 월드리더스쿨), 이재만

8/3-7 창조과학탐사 (시카고 베들레헴교회), 이재만
 8/8-9 오렌지가나안교회 (이재만), CA
 8/10-12 창조과학탐사 (샌디에고기쁨교회), 이재만
 8/13-15 창조과학탐사 (남가주 남침례회 한인지방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